

News & Views

美國 國防産業 轉換法案(Defense Conversion Bill)의 초안이 발표됨

냉전 체제의 해체와 국방비의 감축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국방 산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그 동안의 생산 활동에서 축적 되어왔던 국방산업 기반의 와해를 막고, 그것을 민간 산업 부문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윤곽이 발표되었다. 이 법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원 군사 위원회(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의 중심 의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될 것이다. 국방 예산의 감축과 국방 산업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괄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 국방 산업 전환 법안은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 관련 기업과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군수 관련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 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있다. 이 계획은 군수 계약 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비군사 성장 산업 부문을 탐색하고, 국방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중소기업들이 제조 능력과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美산업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에서 군수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국방성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technology extension program)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성의 기술 데이터-특히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 기술이 민수 생산에 사용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군사 제품 공급자들의 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二重用途技術'(dual-use technology) 콘소시움의 구성이 계획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금과 벤처 캐피탈을 동원해서 DARPA로 하여금 SEMATECH와 같은 콘소시움을 구성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과 연방 연구소가 협동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주체를 선정할 때에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방 연구와 민간 연구 개발활동을 통합시키는 것이 모색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Grants Program)의 확대도 이 일괄 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 국방성은 상업적 파급 효과가 큰 기업들에게 더 많은 SBIR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 용도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국방성과 첨단 기술 기업과의 합작을 주장하는 '기술 산업화에서의 협력'(Partnerships In Technology Industrialization)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도 제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방성이 합작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중 용도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이 밖에도 기술 인력에 대한 재훈련과 장학금 지급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방 관련 기업들의 생산 다변화에 대한 지원들도 언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이 일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민수 전환 프로그램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백악관에 비추어진다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New Technology Week 5월 18일자 참조).

송위진¹⁾

주석 1) 동향분석 연구실, 연구원

